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13일(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 교통정책팀장 지원찬 ☎ 440-3851 • 담당자 조항용 ☎ 440-3852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철도노조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9월 14일부터 서울지하철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조 연대파업 예고 -
 -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이용편의 노력 등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14일부터 서울지하철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조가 교통약자 무임수송 국비지원 등을 요구하며 연대파업(이하 “철도노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는 경인선과 수인선의 코레일노조와 공항철도 노조는 참여하지 않는 점, 파업을 실시하는 철도 노선도 필수유지인력으로 인해 출근시간은 정상운행을 유지하는 점,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평시대비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파업으로 인한 큰 혼잡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 파업의 연대파업 확산 및 파업 장기화 등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업기간동안 인천교통공사와 공조해 자체 비상수송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수송수단별 비상수송 대책을 보면,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소속인 서울7호선의 경우 파업초기에는 출근시간대 정상운행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 등으로 운행률이 70%미만일 경우 교통상황을 고려해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역버스 증회 운행 및 전세버스 투입, 그리고 경인선과 공항철도 등으로 분산이용토록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천 지하철의 경우 파업기간 65% 필수유지인력과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인으로 운행하고 있는 인천 2호선 등으로 파업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호선과 마찬가지로 철도 운행률이 70%미만이 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교통상황과 수송인원 규모에 따라 인천지하철과 연계된 시내버스 168개 노선을 증차 및 증회 운행하고 막차시간 1시간 연장,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부득이 택시부제 해제, 전세버스 투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우리 시의 경우 인천교통공사 노조의 파

업규모나 참여인원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석연휴까지 포함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천교통공사 노사가 파업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특별수송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